

조부모 대리양육 아동의 장기위탁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hildren's Long-Term Boarding Care
at Surrogate Foster Home

이현주(Hyun Ju Lee)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ature of long term boarding care of children provided by grandparents in surrogate foster homes. Data were collected from 10 children 15 to 18 years of age by in 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 from May 2007 to July 2007. Analysis of data was by the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of Giorgi (1970). Seven essential themes were extracted: (1) ambivalence about being labeled "family headed by a child," (2) recognition of the burden to grandparents with appreciation for their care, (3) resentment and yearning for parents, (4) economic hardship, (5) discord with grandparents, (6) mal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7) overcoming such obstacles as poor economic conditions and loneliness.

Key Words : 대리양육가정(surrogate foster home), 장기위탁보호(long term boarding care),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method), 소년소녀 가장(child headed family).

I. 서 론

우리나라는 가정이 해체되어 부모가 없는 아동을 지역사회 보호라는 명목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장의 책임을 지우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라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고령의 조부모와 동거하거나 친인

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로 이미 가 형성되어 있다(강수진, 2000). 따라서 그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 부르는 것은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조부모 대리양육 위탁가정¹⁾,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으로 유형화하여 보호하게 되었다.

¹⁾ 김해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un Ju Lee, Dept. of Social Welfare, Gimhae College, Gimhae 621-908, Korea
E-mail : jade@gimhae.ac.kr

1) 본 연구에서 조부모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생계비와 양육비를 지원받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부모가 친부모를 대신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탁양육하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리양육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위탁가정은 과거에 소녀소년가장으로 그 명칭만 달리 하여 구별한 것으로 장기위탁보호(long-term boarding foster care)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기존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친인척 보호체제를 단순 전환하여 보호하는 수준으로 본질적인 문제인 양육환경, 가족기능, 양육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문제를 간과했다.

현재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아동은 전국 9,062명(보건복지부, 2007)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와 양육보조금 7만원 그리고 상해보험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조부모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는 친인척 가정위탁(kinship foster home care)과 친인척 보호(kinship care)로 나뉘는데, 전자는 일반가정위탁과 같이 가정조사와 훈련을 받고 서비스도 받지만, 후자는 가정조사나 교육은 받지 않고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허남순, 2004). 친인척 보호는 아동 배치시 아동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문화적, 인종적 정체감을 유지시키는 '확장된 가족 보존의 형태'(Nisivocchia, 1996)로 아동이 면식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살고, 가족의 역사와 문화가 비슷하며 아동의 형제들과 연결이 용이하며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Wilson & Chipungu, 1996). 이러한 친인척 보호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나 목적보다는 생활능력이 없는 조부모에게 아동을 양육하게 하고, 이러한 양육이 장기보호 형태가 되면서 대리양육 위탁보호가 과연 아동을 위한 보호대책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실제,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양육자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조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사를 하는 등 집안의 세대주로 조부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성인 보

호자의 부재, 무능력 등으로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역할을 해야 하는 '애어른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아동복지법개정 이전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포함시켜 연구가 이루어졌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연구는 소년소녀가장 실태 및 개선방안(문선화, 1995; 문선화·류기형, 1992; 이배근, 1985), 소년소녀가장의 심리·사회적 적응(오승환, 2000; 이병진, 1996; 최현숙, 1996)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에는 가정위탁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허남순, 2000; 2004), 위탁아동 양육방법에 관한 연구(양심영·박은미·이광문·이경희, 2001), 친인척 보호와 소년소녀가정(강수진, 2000), 위탁아동의 적응(양심영, 2003)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조부모 대리양육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드물며 또한 소년소녀가장에서 조부모 대리양육 위탁보호로, 최근에는 저소득 조손가족으로 용어상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소수의 연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우울, 심리사회적 적응 등을 횡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있지만, 아동에 대한 심층적이고 내면화된 접근의 연구는 여전히 부족했다. 고령의 조부모가 명목상 부양자로 된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장기적으로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느낌 감정 및 어려움에 대해 대리양육 위탁보호의 장단점 즉,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에 의해 장기적으로 양육됨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과 대리양육위탁이 친인척위탁이나 일반위탁보다 아동의 불안감소와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을 고려한 중립적 시각에서 깊이 탐색하여 그 의미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18세 미만의 대리양육 위탁아동을 직접 만나 그들의 장기위탁 경험과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아동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아동들이 겪는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과 사회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질문은 원가족 해체 후 조부모 대리양육 위탁아동이 경험한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와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은 어떠한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조부모 대리양육 위탁아동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가정위탁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을 대리양육 위탁아동으로 전환하여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조부모 대리양육 위탁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소년소녀가정의 아동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에서 소년소녀가장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하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07).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유형은 부모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그리고 이혼 등이며(양심영 외, 2001), 이러한 발생원인은 아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및 가족 간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가 주요인이다.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부모와 동거하다가 부 사망 후 모의 가출 및 재혼으로 조부모와 동거하게 되고, 조부모가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아동은 친인척과 동거하게

되거나 시설로 입소하는 배치경로를 보였다(허남순, 2000).

대리양육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조부모의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양심영 외, 2001) 국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양육보조금 7만원 이상, 상해보험 (보건복지부, 2007)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조부모의 만성질환과 노환으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아동 자신의 사교육에 대한 욕구와 취업준비로 경제적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남연희, 2000).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20세가 되면 취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어 오히려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아동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의 악화로 조부모가 거동 할 수 없거나 사망할 경우, 가정해체를 경험했던 아동은 다시 분리를 경험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아동은 조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지만 집안의 세대주로서 심리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역할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은 경제적 곤란, 부모 상실에 대한 심리·정서적 문제, 부모역할의 부재, 이성 친구 및 진로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의논상대 결여 혹은 부재 등으로 일부 아동은 학업문제 및 비행문제를 경험하고 있다(허남순 외 2000).

따라서, 조부모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제도 및 명칭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연로한 조부모를 모시고 아동이 가장역할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리양육 위탁보호 아동을 다른 유형의 위탁보호와 같은 하나의 범주에 넣어 접근하

기 보다는 문제의 본질, 의뢰사유, 부모의 상황 그리고 요구되는 서비스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의 장기위탁 적응

우리나라 대리양육 위탁보호 기간은 평균 8.4년으로 장기 위탁보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양육자인 조부모의 건강, 경제, 연령이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양심영 외, 2001). 아동은 원가족 해체 후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정서·행동상의 적응에 영향을 받는다.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학업성적 수준의 하락과 더불어 분노, 공격성, 억압, 죄의식 감정 유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아개념, 인지능력의 저하, 비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강문희·김소연, 2005). 또한 이러한 결손가족의 아동은 우울, 불안, 철회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정상가족 아동에 비해 인지적 및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orehand et al., 1987). 그러나 모든 결손가정의 아동이 발달상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결손은 아동에게 갈등적이고 학대적이고 방임적인 가족환경에서 벗어나 더 조화로운 환경으로 전환시켜 행동적이고 심리적 문제를 적게 가지며 능력 있는 개인으로 발전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Hetherington, 1989). 또한, 조부모의 양육이 다른 형태의 양육과 비교하여 아동발달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환경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구조의 특성과 아동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부모-손자녀가족과 양부모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아동을 비교한 결과 조부모 가족의 아

동은 학업성적에서 양부모 가족의 아동과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olomon & Marx, 1995).

그러나, 아동의 적응과 관련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이 일반가족 아동에 비해 정서적 혼란이나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가족 아동에 비해 현재의 적응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오승환, 2000). 오히려 이혼으로 가족해체에 따른 아동의 적응상태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부모가 이혼한지 초기보다는 5년이 지난 후 아동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났고(오은순, 1997), 그리고 조손가족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조부모와 동거하게 된 이후 초기보다는 7-8년이 지난 후 아동의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났다(김혜선, 2005). 또한 양심영 외 (2001)의 연구에서도 대리양육 아동의 정서 및 행동상의 반응에 있어서 초기보다는 위탁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반위탁가정과 비교하여 대리양육 위탁가정이 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보호와 같은 장기위탁의 경우, 아동은 성인보호자 부재, 무능력 등으로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역할을 해야 하는 여건과 조기성숙의 압력을 받은 '애어른 역할'이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아동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성인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역기능 가정의 산물로 성인의 문제를 나이에 맞지 않게 조속하게 다루어야 하는 성인화된 아이(adultified child)(Sledge, 1996)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인화된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역기능적 가족체계로 조속한 아이로 성장하는 경우, 억압되거나 왜곡된 아동기 발달이 성인기에 문제로 재현된다(박현선·이상균, 2001)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양육 아동은 배치 후 초기 적응 시 다른 유형의 위탁아동보다 적응과 생활에 유리하지만(양심영 외, 2001), 위탁보호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거나 위탁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이 오히려 양육자인 조부모와 동생을 보살피는 직·간접적 가장역할을 하는 등의 적응상태를 보이게 된다.

III. 연구방법 및 과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기술적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탐구영역은 경험이며, 의식 경험의 구조분석을 통해 이성적인 조작보다 더 근원적인 것 즉, 논리적 구성물 밑에 깔려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추구한다(심경림, 2004).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 Giorgi(1970)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 연구방법은 Husserl과 Merleau Pontry의 철학적 배경으로 기술학적 현상학으로 해석학적 현상학과는 달리 해석 이전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고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술이 중요하다고 본다.

2. 연구참여자 선정과 고려

1) 연구참여자 선정

질적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에서 표본추출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적절성과 충분함이라 할 수

있다. 적절성이란 연구에서 이론적 필수조건에 따라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어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충분함이란 연구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해야 함을 의미한다(Morse, 1989). 본 연구에서 연구자료의 충분함을 위해 참여자와의 심층면접, 초기 면접지, 과정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적절성을 위해 부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로 아동의 장기위탁 경험은 10년 내외이며 성별은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했다. 아동의 연령은 18세 3명, 17세 3명, 15세 3명, 16세 1명으로 총 10명이며, 발달상의 연령구분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미만의 대상자 모두 아동으로 보았다. 출생순위도 가능한 장남, 장녀로 했다. 이들은 조부모와 동거 기간이 다른 형제, 자매보다 길고 또한 집안에 대한 부담 및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대상자의 선정 이외에도 사춘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연구자에게 자신의 문제 및 감정 등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 가능해야 하며, 참여자 중 외동 2명은 장남, 장녀로 보았고, 차남 1명은 형이 19세로 지원 종결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기위탁 경험에 관련된 간략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연구참여자에 대한 고려

대리양육 위탁아동에게 낯선 사람이 방문하여 면접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수치심(stigma)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다. 우선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역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구참여 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받고, 이 후 개인 이메일로 연구의 목적, 참여방법에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성별	출생 순위	양육자/ 연령	양육 기간	가 정 배 경
참여자1	18세	여	1남1녀 장녀	조모 (70세)	12년	부모 생활고로 이혼 후 행방불명됨. 최근 조모의 건강이 악화됨. 연년생인 남동생이 학교중퇴후 복학함. 대학진학을 포기함.
참여자2	15세	여	2녀 장녀	조모 (71세)	11년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가출. 동생이 지체장애 4급임. 학업성적이 최하위임.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음.
참여자3	17세	남	1남1녀 장남	조모 (72세)	13년	아버지 사업실패 후 연락두절, 어머니 가출. 조모 뇌와 관련된 된 대수술 3회 받음.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함.
참여자4	16세	여	1남2녀 장녀	외조부 (78세)	8년	이혼 후 부 해외도피, 모 행방불명. 작년까지 아동은 가출과 문제를 일으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 집안일을 여동생과 함께 전담하고 있음.
참여자5	18세	여	1남1녀 장녀	조모 (69세)	8년	모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가출. 부 이혼 후 잇다른 사업실패 후 행방불명. 조모는 부의 빚으로 힘든 생활 중. 우수한 성적이지만 대학진학 포기함.
참여자6	15세	남	1남1녀 장남	조모 (71세)	9년	이혼 후 부 행방불명. 모 재혼. 모가 아동 양육을 책임졌으나, 계부의 학대로 보육원에 두고 감. 현재 아동은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 중임.
참여자7	17세	남	1남1녀 장남	조모 (73세)	10년	이혼 후 부 중국 도피, 모 연락두절. 작년 조부의 사망으로 정신적 혼란상태. 아동의 학업능력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임. 하루 7시간 이상 컴퓨터 게임을 함. 조모의 통제 불능상태.
참여자8	18세	남	2남 차남	조모 (78세)	17년	부 사망 후 모 재혼. 형과 함께 조모에 의해 양육됨. 조모 왼쪽 시력 상실, 고령으로 의사소통 힘들. 졸업 후 군입대 예정.
참여자9	15세	남	외동	조모 (65세)	14년	모 미혼모임. 부 모름. 조모는 1년전 뇌출혈로 쓰러짐.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함. 건강악화로 임중준비 중. 그동안 아동은 혼자 생활함. 1주일에 한번 삼촌 방문.
참여자10	17세	여	외동	외조모 (70세)	15년	부모 이혼 후, 부 연락두절. 모 행방불명. 조모 지나친 흡연으로 1년 반가량 입원 치료받음. 그러나 현재 임중준비 중. 아동은 정신적 혼란상태임. 거주 및 삶에 대한 계획준비 중.

대해 안내를 했으며, 이에 회신을 한 아동을 대상으로 면담일자를 정하고 방문했다. 연구자는 면담 처음에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고,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기술된 동의서를 받았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면담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이를 녹음했다.

3.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07년 5월 5일부터 2007년 7월 5일까지 약 2개월간이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 질문을 통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면담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각각 2회씩 실시되었다. 면담방법은 조부모와 살면서 느낀 점, 생각, 지각, 하고 싶은 이야

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면담시의 질문은 순서적이라기보다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의 생활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했다.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에 맞는 경험을 끌어내기 위한 주요 질문은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가, 조부모와 동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는 어떠하였는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등이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면담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곳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모두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했다.

4. 자료분석 방법

현상학적 자료분석 방법은 대상자의 체험의 의미를 밝히려는 의도로 자료를 집중하여 읽는 심사숙고(contemplative dwelling)가 권장된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선행연구가 부족한 대리양육 위탁아동이 겪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이 원가족 해체 후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아동의 입장에서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Giorgi의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Giorgi, 1970).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 즉,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

래의 의미단위(identifying natural meaning unit)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와의 면담을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 그대로 자료로 기술했다. 제2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언어로 표현된, 대상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theme)를 규명하는 것으로 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냈다. 제3단계는 연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focal meaning)를 찾기 위해,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고 비슷한 속성으로 분류하여 중심의미를 도출하여 각 참여자에게 나온 현상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제4단계에서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연구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을 만들고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통해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을 기술했다(신경림 외, 2004; 최영희, 1993). 제5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기술을 타당화시키는 과정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 & Guba(1985)이 제시한 4가지 항목인 사실적인 가치(true value), 응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에 근거하여 검증했다. 사실적 가치의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나온 현상의 의미를 참여자 이외 대리양육 위탁아동에게 경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혹은 공감하는지 검증받았다. 응용성은 양적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음(transferability)’이다. 연구결과를 연구 상황 이외의 다른 맥락에서 연구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리양육 위탁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연구 참여자로서 적절한지를 알고 그 대상자를 선택하는 편

의추출방법으로 선별했다.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조부모는 일반적으로 평균연령이 66세 이상(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양심영 외 2001)이고 아동을 위탁양육한 기간이 최소 8년 이상(박창기, 2002; 양심영 외 2001; 최해경, 2002)되며, 위탁사유는 대부분 부모의 사망, 이혼 및 가출의 경우(양심영 외 2001; 허남순, 2000)이다. 또한 일관성은 양적연구에 있어 신뢰도와 같은 개념으로 연구결과가 반복되는 정도를 말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절차의 일관성, 안정성, 의존성을 말하며, 질적연구에서는 경험의 중요성과 인간상황의 독특함을 강조한다(최영희, 1993).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석과정에서 연구자 외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 석사 1명, 가정위탁 담당 사회복지사 1명에게 의뢰하여 결과의 지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중립성은 질적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있

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자가 가진 선이해, 편견, 가정을 등을 일지에 기술하고, 면담자료와 문헌내용, 자아인식 등을 메모해 두어 이 내용들을 상호 비교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IV. 연구결과

1. 중심의미(focal meaning)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있는 진술은 102개였으며, 여기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진술을 제외하고 51개 주요 진술을 통해 50가지의 명확한 의미가 추출되었다. 이것은 17개의 주제로 유목화했고, 7개의 중심의미로 표현되었다.

〈표 2〉 대리양육 아동의 장기위탁 경험에 대한 중심의미 도출

중심의미	주 제	명확한 의미
‘가장’이라는 명칭에 양가감정 (ambivalence)	‘가장’이라는 말에 우울하고 화남	- 집안을 짊어져야 한다는 말에 우울함. -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됨. -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에 화가 남.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 돈 벌어서 조부모와 동생을 보살펴야 함. - 돈 벌어 할머니 드려야 함. 할머니 힘들어 하심. - 장애가 있는 동생은 보살펴야 함.
	실질적 가사전담	- 동생하고 나하고 집안일을 함. - 아픈신 할머니 모시고, 집안일을 전담함.
조부모에 대한 안타까움	죽음불안을 느낌	- 입원중인 조부모가 돌아가실까봐 걱정됨. - 아플 때마다 ‘덜컹덜컹’ 겁이 남. - 질병으로 쓰러지셨음. - 요양원에 계심.
	고생하며 키움	- 업고 일하러 다님. -힘들게 키우셨음. - 돌때부터 키웠음. -어릴 때부터 키우셨음.
	모정(母情)을 느낌	- 할머니 젖을 먹고 성장함. - 할머니를 ‘엄마’ 라고 생각함. - 이젠 할머니 아들, 딸임.

〈표 2〉 계속

중심 의미	주 제	명확한 의미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부모에 대한 원망	-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살아감. - 부모의 가출과 버림에 대한 원망. - 연락이 오지 않음 -재혼함.
	묻어둔 그리움	- 눈물이 남.
경제적 곤란	경제적 고통	- 용돈이 턱없이 부족, 필요물품 구입 못함. - 수학여행을 못 감. 그러나 요구하지 못함.
	취약한 친인척	-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 - 친인척도 건강이 안 좋음. 사업이 잘 안됨. - 지속적 지원은 곤란.
조부모와 갈등	세대차이	- 세대차이 느낌. -옛날 사람임. - 조부모와 의논하지 않음 - 소리 지르고 대들.
	듣기 싫은 잔소리	-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심. - 엄마하고 같다면 꾸중하심. - 참견함. - 무슨 말만 하면 '공부 못 한다' 함.
학교생활 부적응	따돌림과 놀림	- 친구가 따돌림. - 친하려고 노력. - 나쁜 형들이 자주 때림. - 놀리는 친구와 싸움.
	기초가 부족한 학업능력	- 학력이 너무 떨어지면 군에도 못 간다고 함. - 반에서 37등 중 37등. 아무리 해도 안 됨. - 맨날 성적이 하위임. 시험 못 침.
현실의 고통 극복해냄	친구의 이해와 위로	-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친구. - 입장을 잘 이해함. - 그 때 그 때 친구들의 위로. - 조부모와 사는 것 친구들이 앓.
	취직준비	- 고등학교 졸업 후 서둘러 취직함. - 돈 벌어서 성공해서 할머니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음. - 대학은 돈 벌어서 갈 예정. - S회사에 원서 넣음.
	돕고싶음	- 어려운 아동을 돕고 싶음. - 친구하고 자원봉사함.

2. 상황적 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

1) 중심 의미 : '가장'이라는 명칭에 양가감정

(1) 주제 : '가장'이라는 말에 우울하고 회남

명확한 의미 :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명칭과 사회의 시선이 부담되었다. 아동은 '가장'이라는 명칭으로 집안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은근히 강요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왜 사람들이 내게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에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해 하기도 한다.

의미있는 자료 :

· 이웃 사람들이 저보고 집안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말할때마다 우울해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저런 말을 나한 데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7).

· 저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야 된다고 하는데, 동생도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한테 그러는지... 이해가 안돼요. 전 그런 생각이 안드는데...(참여자 1).

· 할아버지 친구 분이 오셔서 동생 보살피고 할아버지한테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짜증나요. 다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건데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니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전 ‘하라 하라’ 하면 화가 나요(참여자 4).

· 주택공사에서 전세자금 빌려주었는데, 제가 소년소녀가장이라서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할머니하고 동생 잘 보살피라고 할때도 그렇고. 제가 왜 소년 소녀가장이란 말인가... 화가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요. 제가 소년 소녀가장이라고 하니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참여자 5).

(2) 주제 : 집안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감

명확한 의미 :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가장’이라는 명칭에 혼란스러워 했지만, 한편으로 집안의 가장으로 고령의 조부모를 모시고, 동생을 보살피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즉, 아동은 집안의 가장역할에 대한 책임을 내면화하고 있다.

의미있는 자료 :

· 제가 돈을 벌어서 집을 책임져야 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니?)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요. 깊게는 생각을 안했는데, 얼른 돈 벌어서 할머니하고 동생을 제가 보살피야 되요(참여자 3).

· 고등학교 졸업하고 S회사 취직해서 돈 벌면서 야간대학에 갈려구요. 돈벌어 할머니 드리고... 동생도 돌봐야 해요. 요즘 사춘기라서 말을 함부로 하고 툭툭 내뱉듯이 해요(참여자 5).

· 할머니가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해요. 동생이 장애가 있거든요. 할머니가 저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것도 동생 때문이에요. 어디 갈때도 제가 동생을 데리고 다녀요. 제가 없으면 동네 애들이 동생을 놀리거든요(참여자 2).

(3) 주제 : 실질적 가사전담

명확한 의미 : 아동은 실질적으로 가사를 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연로하고 건강이 악화되면 아동이 전담한다.

의미있는 자료 :

· 집안 일은 동생하고 저하고 거의 해요. 밥은 우리가 하고, 반찬은 할아버지가 하거나 근처 사시는 고모 할머니가 갖다 주세요. 저녁은 보통 7시에 먹는데 동생하고 저하고 챙겨요. 거의 집안 일은 동생하고 저하고 해요. 빨래는 세탁기에 하고(참여자4).

· 제가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집안 일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해요. 제가 먹을 것만 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깐 힘들지는 않아요. 한번씩 학교 갔다오면 아무도 없으니깐 마음이 좀 그렇고 한번씩 집에 아무도 없으니깐...(참여자 10).

· 그래도 학교 마치고 와서 제가 다 챙겨먹어요. 집안일을 대충하고 청소하고 밥먹고 설거지하고 싱크대 씻고해요. 집안일은 할머니 입원하고 나서 부터 거의 제가 다 해요. 1년 되었어요(참여자 9).

2) 중심의미 : 조부모에 대한 안타까움

(1) 주제 : 죽음불안을 느낌

명확한 의미 : 아동은 조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돌아가실까봐 걱정을 하는’ 죽음불안을 경험한다. 조부모의 죽음은 아동에게 삶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충격으로, 아직 아동은 조부모와의 분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의미있는 자료 :

· 할머니가 돌아가실까봐 걱정되요. 64살인 거 그래요. 나이 많이 드시지는 않았는데. 할머니가 안아프셔야 되는데... 처음에 병원가시기 전에 다치셔 가지고... 병원간적 있는데 그때 머리인가 거지요. 아픈신 상태였는데 2차로 또 사고 나서 그래요. 지금 노인병원에 계세요(참여자 9).

·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요. 뇌출혈로 완치 가 되었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드시지를 않는거예요. 영양부실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도저히 못마땅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눈은 다시 뜨셨는데 전혀 안드시고 움직이지 못하

는 상황으로 되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완전히 우리를 못 알아보고... **아무래도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영영(참여자10).**

·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실때마다 ‘덜컹 덜컹’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저번때처럼 막 방황하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언제가 돌아가실거야 하고... 그래도 아프시다고 하면 걱정되고 그래요. 마음은 먹고 있지만(참여자 4).

· 할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실때 걱정이 되요. 당뇨하고 심장병이 있어서 **돌아가실까봐 걱정돼 죽겠어요.** 형하고 저하고 남는 것이 좀 그래요(참여자 8).

(2) 주제 : 고생하며 키움

명확한 의미 : 아동은 조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키운 것을 알고 있다. 근로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취약한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었을 경제적 고통과 삶의 무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아동들은 조부모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인다.

의미있는 자료 :

·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시고 기운이 없어서 그만 두시고, 복지관 주위에 쓰레기 줍고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어릴때 할머니 따라다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일하러 다니시면 저를 업고 다니셨다고 하던데요...** (중략). 할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찌든 힘들게 키우셨는데 제가 좀 잘 헤드려야 하는데...** (참여자 10).

·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가시고 **제가 들때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할머니가 우리 들 키운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은 고생한게 별로 없는데...(참여자8).

· 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때부터 키웠어요.** 생활비가 구청에서 들어오는데도 생활이 어려워서 집(占)을 보셨어요. 할머니가 아시는 분 위주로 집을 보시고 봐주고는 돈 좀 받고 그러셨어요(참여자 9).

· 처음에 할아버지 집에 왔을때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울고 했는데... 그때 할아버지도 **저희들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참여자 4).**

(3) 주제 : 모정(母情)을 느낌

명확한 의미 : 둘째 혹은 약 3살 가량의 연령에 조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들은 조모를 ‘엄마’로 느끼고 있다. 어릴때 조모의 젖을 물고 잠든 경험이라던가, 친부가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때 조모가 ‘이젠 내 딸이라면 보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아동으로 하여금 조모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의미있는 자료 :

· 할머니 돌아가시면 결혼 안한 노총각 삼촌이 같이 살자고 했어요. 삼촌이 저보고 아들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할머니 아들 하기로 했는데...**(참여자 9)

· 친구 중에 엄마, 아빠가 60이 넘어 낳은 늦둥이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연락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데요 “할머니에게 말해 놓았으니 잘 듣고 준비물 챙겨서 오너라”라고요. 그럼 그 친구는 “할머니 아니고 엄만데요”라고 한데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라고 했어요(참여자 6).**

· 어머니 가출하고 둘째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어릴때 잠을 못자고 하면 **할머니 젖을 물고 자고 했데요(참여자 8).**

· 한번은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는 ‘내 딸이다’라며 혼을 내서 그냥 보냈데요.** 이모가 말씀해 주셨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싫어요(참여자 10).**

3) 중심의미 :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1) 주제 : 부모에 대한 원망

명확한 의미 : 아동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오랫동안 조부모의 연락처가 그대로인데 연락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조부모에게 두고 잇은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의미있는 자료 :

· 어릴때 나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어릴때 나가시고 연

락도 없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아예 안하고 살려구요. 그렇게해야 편해요(참여자 3).

·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세달이가 있다가 엄마가 우리를 두고 도망치셨다고 하데요. 연락도 없고 전화번호도 그때 그대로인데 연락오겠지 싶었는데, 형이 군에 가는 것 때문에 병무청에 알아보니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거로 나오던데요(오랜 침묵) (참여자 8).

· 부모님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아무리 성격차이로 마음이 안맞다고 해도 우리를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은 하기도 싫어요. 아버지가 저희들을 할아버지 집 앞에만 두고 그냥 가 버리셨어요(참여자 4).

(2) 주제 : 묻어둔 그리움

명확한 의미 :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다가 생활속에서 문득 떠오를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부모를 그리워하기 보다는 TV 시청, 친구과의 대화, 부모가 참석해야 할 모임 등에서 부모가 없다는 현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의미있는 자료 :

· 할머니 하고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도 아빠 있다. 엄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밥 먹다가 막 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참여자 8).

· 애들이 전화하면서 엄마 안부 묻고 뭐 같이 사러가고 할때 눈물이 나요(참여자 4).

· 다른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끔해요(참여자 7).

4) 중심의미 : 경제적 곤란을 견뎌

(1) 주제 : 경제적 고통

명확한 의미 : 아동들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차비, 용돈, 준비물 등이 필요하지만 조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아동은 수학여행을 못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달라고 말을 못하는 등 경제적

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의미있는 자료 :

· 할머니가 저보고도 용돈을 주지 못해 늘 마음이 짠하다고 그러셨어요. 집이 이렇다 보니깐 용돈이 주기적으로 없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받아쓰고 그것도 다 준비물로 나가니깐. 차비가 많이 나가요. 하루에 1,300~2,000원선인데 학생은 카드로 해도 한번에 650원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두 세번 타요. 또 친구들이랑 학교갔다 어디 갔다오기도 하는데... 계산해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걸어오기도 해요(참여자 1).

· 갑자기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면 화가 나다가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돈이 문제죠. 쓸거 못쓰고 힘들죠. 뭐 먹고 싶을때 할머니 보고 사달라고 말을 못해요. 할머니에게 돈이 없는 것을 알거든요(참여자 8).

· 할머니가 아침에 화를 내시면서 용돈을 하루에 500원을 줘요. 집안 사정 어려우니깐 더 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도 못사고... 너무 속상해요. 할머니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가봐요(참여자 2).

· 학교에서 전부 지원을 해줘요. 급식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학급비 40만원 내는것도 지원해서 안내도 되고... 학교 다니는 것은 편한데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고 돈내라고 할때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수학여행은 못갔나?) 네...(참여자 10).

(2) 주제 : 취약한 친인척

명확한 의미 : 아동은 친인척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신과 조부모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가끔 음식을 해서 찾아오고 연락을 하는 정도로 만족해 한다.

의미있는 자료 :

· 작은 삼촌은 지금 애가 있어요. 삼촌의 부인인 작은 엄마는요. 작은 엄마 친정에서는 저희들 있는거 몰라요. 결혼 안시킬려고 했는데, 막 설득하고 해서 삼촌을 외동 아들로 호적 정리해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도 작은 삼촌 집에 가지도 못해요(참여자 2).

· 큰고모가 앞에 아파트 단지에 사는게 사촌 들

도 모두 고등학생이고 고모부도 건강이 안 좋아서 잘못도와줘요. 가끔씩 김치 같은거해서 들고 오세요(참여자 8).

· 이모는 6명이 되는데요. 전부다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를 해도 잘 안되고 어렵고 해서 저를 돌봐줄 형편이 안되요. 할머니도 돈이 필요하면 이모들한테 전화를 못하고 주위 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쓰셨어요. 그래서 값을 돈이 없어서 장사를 해서 나물을 팔아서 천원, 이천원씩 갚았어요(참여자 10).

5) 중심의미 : 인식차이를 알고 있음

(1) 주제 : 세대차이

명확한 의미 : 아동은 조부모와 세대차이를 느끼고 있다. 조부모는 '옛날 사람'이며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부모와 이야기를 하거나 의논하는 것은 아동에게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아동들은 70대 조부모에게 대들고 소리 지르고, 짜증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의미있는 자료 :

· 할머니한테 자주 대들어요. 저희들을 이해를 잘못하세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말을 하다가 (제가)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답답하고 그래요(참여자 5).

· 별 할말이 없어요. 집에서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고... 학교가면 많이 떠들고 노는데 집에서 별로... 그리고 할머니하고 할 말도 없고 이해도 못하네요(참여자 3).

· 지금은 안그렇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짜증나고 집에 들어오기 싫은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보면 괜히 신경질 나고 한거... 할아버지는 제 맘을 이해 안해주세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했어요. 지금은 안그래요... 지금은 후회해요(참여자 4).

· 할머니하고 세대차이가 너무 나서 힘들어요. 그냥 제가 한번씩 머리 막 꾸미고 싶잖아요. 저번에 할머니 몰래 귀를 뚫었는데... 지금은 막혔구요. 할머니가 귀도 못뚫게하고, 멋내고 싶은데 염색도 못하게 하시고 웃도 많이 사고 싶는데(중간생략)(참여자 2).

(2) 주제 : 듣기 싫은 잔소리

명확한 의미 : 아동은 조부모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에도 조부모는 여러번 반복적으로 말을 한다고 했다. 특히, 아동은 가출한 부모를 빗대거나 공부를 못한다는 식의 꾸지람을 무척 듣기 싫어했다.

의미있는 자료 :

· 예전에 제가 나쁜 애들이랑 어울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말을 잘 안하는데... 할아버지는 제가 엄마하고 똑같다면 제가 뭐라고 말만하면 혼을 내세요. 사실 이해가 가지만 정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알거든요. 제가 잘못한거요. 그때 자주 하세요. 정말(참여자 4).

· (중간생략) 학교에서 머리 길면 안되는데... 전 머리 짧은거 싫거든요. 노래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가 계속 잘라라고 하니깐,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볼때마다 그러니깐 미치겠어요. 방학하면 그냥 넘어 가도 되거든요(참여자 6).

· (중간생략) 핸드폰 문자가 요금제라서 핸드폰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끔씩 아는 언니들한테 몰래 몇통만 보냈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거예요. 핸드폰비 많이 나간다고. 무슨말만 했다하면 공부도 못한다고 하시고...(참여자 2).

6) 중심주제 : 학교생활 적응 노력

(1) 주제 : 따돌림과 놀림

명확한 의미 : 아동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괴로힘 그리고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아동은 부모가 없다고 놀리는 친구와 싸운적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따돌림과 놀림에 대해 조모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견디어 내고 있다.

의미있는 자료 :

· 애들이 싫어해요. 괴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들이 저랑 놀지 않았어요. 제 생각엔 제가 애들이 싫어하는 일 계속하고 하니... 학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점심 같이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싫어서 같이 안 먹어요. 저도 그래서 밥 굶고 점심 안먹어요(참여자 2).

· 초등학교 중학교때 몇 번 놀렸어요. 그냥 친구들은 부모님이 있고 나는 없고 하니깐 놀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때렸어요. 싸우고 그랬어요(참

여자 8).

· 처음에 이 동네에 이사왔을때 나쁜 형들이 자꾸 저를 때리고 해서 경찰 아저씨들 이 따라다녔어요. 할머니가 울고 그러셨는데...(참여자 6).

(2) 기초가 부족한 학업능력

명확한 의미 : 아동들의 학력수준은 하위권이다. 조부모의 문맹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아동의 기초 학습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성적은 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미있는 자료 :

· 반에서 하위권인데요. 몇 번 복지관에서 나와서 과외를 했는데...(할머니가 말씀하시던데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니?) ... 네 제가 조리과인데... 어려움이 많아요. 막내삼촌이 학력이 너무 떨어지면 군에도 못간 다고 하시더라고요(참여자 7).

· 반에서 37등중에 37등이에요. 할머니가 맨날 옆동네 ○○대학교 간 언니들과 비교를 해요. 삼촌이 반에서 20등은 하라고 해요. 그러면 디카폰 사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갖고 싶지만 제가 도저히 20등은 못하겠어요. 반에 공부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힘들어요. 삼촌이 약속하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돼요(참여자 2).

· 이번에도 시험을 못쳤어요. 충격좀 먹었거든요. 시험공부는 하기는 했는데... 아파 가지고 머리하고 배 아프고 해서 집에 누워 있었어요. 시험 치기 전날에 가서 하기는 했는데 ... 못쳤어요. 맨날 성적이 밑에만 있으니깐... (참여자 9).

7) 중심의미 : 현실의 고통 극복해냄

(1) 주제 : 친구의 이해와 위로

명확한 의미 : 아동은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비슷한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아동은 이러한 친구들의 이해와 배려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 그리고 아동은 친구들의 지지로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의미있는 자료 :

· 여기 동네에서는 우리 학교 다니는 최○○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애인데 제일 친하고 그 다음은 이○○인데 그 애는 아파트 1단지에 사는데 늦둥이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60이 넘었어요(중간생략). 그 애들과 자주 이야기를 해요. 제 입장을 이해해줘요 그 애들은 할머니가 쓰러져서 요양원에 간것도 알구요(참여자 10).

· 친구들도 알아요. 제가 할아버지하고 사는거, 그래서 이해도 해주고 많이 도와줘요 작년애 제가 술먹고 담배피고 한거 후회도 되고 이제부터 잘해보고 싶어 친구들하고 올해부터 육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늦은거예요. 그 애들을 볼때마다 저는 다행이구나 싶기도해요(참여자4).

· 항상 할머니가 학교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9시쯤 되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할머니 먼저 보면 우리 할머니한테 저 좀 있다가 나올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줘요. 교문 먼저 나간 친구들이요(참여자 3).

· 그때 그때 친구들이 위로해 주어요. 친구들이 제가 할머니와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잘 해줘요. 친구들이 “요즘 뭐 할머니와 사는 애들이 많은데...”라고 해요(참여자 5).

(2) 주제 : 취직준비

명확한 의미 : 아동은 경제적 곤란, 연로하신 조부모, 동생 등으로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조모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 했으며, 또한 취직과 관련하여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

의미있는 자료 :

· 취업할러구요,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요. S반도체에 넣었는데... 대학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할머니가 돈도 없구요. 그래서 그냥 돈벌어서 따른거 할거예요(뭐 할거니? 구체적인 계획이 있니?). 돈 벌어서 집에다 돈 좀 드리고 그거 모아서 카페를 할거예요. ... 돈 좀 벌어서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서(참여자 1).

· 대학 생각은 없어요.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갈거예요. 형하고 저 중에 한명은 군대 가야해요. 형이 지금 생계곤란으로 군면제를 받고 있는데 제가 돈을 벌면 형이 군에 가야해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면 형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군에 갔다 와서는 형이 다니는 공장에서 같이 일할 거예요. 일른 돈 벌어서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참여자 8).

· 반에서 2등 하는데 할머니는 전문대학이라도 가라고 하는데... 동생이 학원다니는데 한달에 16만원 정도 들고해서... 대학은 돈 벌어서 갈 거예요. 아버지가 이전에 고모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서 더 이상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S회사에 원서 넣었는데 아마 될 거 같아요(참여자 4).

(3) 주제 : 돕고 싶음

명확한 의미 : 아동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아동을 돕고 싶어 했다. 그리고 아동은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조부모와 동생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의미있는 자료 :

· 전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애들 많이 도울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도 도울 거예요... (참여자 8).

· 보육원에 친구들하고 자원봉사하는 거는 그냥 점수 때문에 하는게 아니구요. 그냥요. 선생님. 전요 그애들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진짜 막 살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할아버지도 있고 사촌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그 애들은 없잖아요(참여자 4).

· 카페하고 사장하면 돈 좀 벌면요. 저번에 금강산에 가셨던 그분(후원자)처럼 어려운 애들 도울 거예요(참여자 1).

3. 일반적 구조적 기술(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 : 현상학적 글쓰기

대리양육 위탁아동의 경험은 ‘가장’이라는 말에 양가감정과 조부모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경험하는 서술로 시작한다. 그러나 경제적 고통, 조부모와의 세대차이, 친구들의 따돌림과 놀림 등을 극복하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부터 위로와 이해 그리고 집안을 경제적으로 돕고자 취직을 결정하는 마음 그리

고 앞으로 자신과 같은 어려운 아동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서술로 전환된다. 이상의 주제를 통합하여 1인칭 화자를 통해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조부모와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 나는 이 말에 우울하고 화가 난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연 내가 소년소녀 가장이란 말인가? 그러나 한편으로 연로하신 조부모 그리고 어린 동생을 생각하면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고 있으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학교 갔다 오면 집안일을 거의 다하고 있다. 조부모가 편찮으실 때는 모두 내 차지가 된다. 간혹 동생이 도와주지만 주로 내가 도맡아 하고 있다.

가끔씩, 나는 할머니가 ‘고생하며 우리를 키운 늙은 엄마’와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할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 앉는다. 걱정돼 죽겠다.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사실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 된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와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으며,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정말 잘해 주고 싶는데... 조부모님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다. 3살도 안된 나를 엮고 일을 하러 나갔으며, 잠이 오지 않아 청얼때때면 나는 할머니의 젖을 물고 잠들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이다.

나의 부모는 내가 어릴때 가출하셨다. 아직 연락도 없다. 이런 부모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살아 가고 있다. 아니, 생각조차 하기 싫다. 그러나 한편 연락이 오겠지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자식을 버릴수가 있는가! 부모가 원망스럽다. 하지만 친구들이 부모와 통화하거나 물건 사러간다고 할 때 그냥 눈물이 흐른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조부모와 살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도, 집이 이렇다 보니 용돈이 주기적으로 없다. 그래서 준비물이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다. 하루에 차비만 계산해도 자칫 친구들과 어울려 시내 나가면 걸어와야 하는 일이 생긴다. 집안사정이 어려우니 더 달라는 말을 못한다. 특히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할때는 낭패다. 돈이 문제인 것 같다. 할머니가 돈이 없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가까이 사

는 친인척도 생활이 어렵다. 작은 삼촌은 우리들 때문에 호적까지 정리해서 결혼을 하셨다. 그리고 이모도 경제가 어려워 장사도 잘 안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하지만 조부모는 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조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전혀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조부모에게 대들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금방 후회한다. 그래도 답답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조부모님은 늙으셔서 그런지 내가 무척 걱정되는가 보다.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신다. 조부모님이 화가 나실때면 집나간 엄마를 닮았다고 하시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나의 학교생활은 노력 그 자체이다. 초등학교때까지 친구들과 잘 어울렸는데 중학교에 오니 힘들다. 어제는 점심 같이 먹던 친구들이 나랑 같이 점심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먹기도 해서 굶고 왔다. 친구들과 친해 불려고 노력하지만 친구들은 내가 싫은가 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공부를 너무 못한다. 아무리 해도 따라가지 못하겠다. 조부모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우리 반에는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무리 해도 안된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내가 조부모와 사는 것을 알고 있고 배려해 주기 때문이다. 친구는 나에게 '요즘 뭐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이 많은데'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어릴때부터 한동네에서 자란 ○○는 나와 비슷한 가정환경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러한 친구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나는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해서 돈을 벌 계획이다. 돈을 벌어서 조부모를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 대학은 돈벌어서 가도록 하고, 일단은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아동을 돕고 싶다.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처럼 나도 좋은 일 하고 싶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조부모 대리양육 아동의 장기위탁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는 아동의 장기위탁 경험을 분명히 이해하여 건전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돕는 사회복지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10명의 대리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한 결과 17개의 주제와 7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 7개의 중심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장이라는 명칭에 양가감정', '조부모에 대한 안타까움',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경제적 곤란', '조부모와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현실의 고통 극복해냄'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중심의미로 나타난 "가장이라는 명칭의 양가감정"에서 아동은 조부모와 동생을 보살피고,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집안의 세대주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부르는 것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허남순(2000)의 연구에서 조부모, 친인척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과 친인척이나 보호자가 동거하지 않는 단독 소년소녀가장들 구분하여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외 친인척 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조부모 보호아동 등 아동의 보호형태에 맞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아동에 대해 구체적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선화(1995)도 근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용어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장'이라는 명칭상의 허울에도 불구하고 대리양육 아동은 '가장'이라는 역할인식과 함께 실질적인 가사를 전담하고 하고 있다. 둘째,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조부모에 대한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다. 아동이 느끼는 안타까움은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준 조부모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안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

존의 양적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으로 조부모 죽음불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죽음에 대해 잘못된 개념과 인식을 가져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 죽음대비 교육을 실시해서(장연집, 1998), 죽음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하고 조부모와의 분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은 가출한 부모에 대한 강한 원망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부모의 존재를 느낄 때마다 슬퍼하고 있다. 부모의 가출로 아동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다는 느낌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또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유혜란, 2005) 또한 아동은 부모의 가출이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비밀스러운 일로 간주되어 부모가출 아동은 그 사실을 숨겨야 하므로 심적 부담감과 죄책감을 겪는 경우가 많다(허인영, 1999).

넷째, 대리양육 아동의 장기위탁경험으로 “경제적 곤란”의 중심현상이 나타났다. 조부모의 만성적 질환과 갑작스런 병원입원, 월세, 각종 공과금 등은 생활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중·고등생인 아동의 경우 교통비, 준비물, 학원비 등 학업 및 진학 그리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집중적 지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동의 친인척 지원체제도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무엇보다 아동의 연령과 학년에 따른 차별화된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

다섯째,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조부모와 갈등”의 중심현상을 경험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조손가족 아동의 양적연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으로, 아동은 조부모를 옛날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고, 조부모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의논하지 않는 등

집안에서 70대와 10대의 세대 간의 가치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조부모는 아동에게 반복적인 훈계, 참견, 부모를 빗대어 꾸짖는 등 아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한정란 외(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노년세대 모두 세대차이를 비교적 많이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는 청소년과 노인 모두 다른 세대에 대한 정보를 주로 대중매체라는 간접적 과정을 통해 얻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노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가 없는 대리양육 위탁아동에게 있어 조부모와 갈등은 단순한 세대차이가 아니라 조부모와 아동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좁혀줄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학교생활 부적응”의 중심현상을 경험했다. 아동은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초·중·고생들이 39.5%에 해당하고 응답자 80%가 교내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다(소년한국일보, 2006. 7. 23).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아동의 학업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아동의 학력수준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학력수준의 저하는 부모가출이 25%가 아동기 전기인 4-7세에, 38%가 아동기 후기인 초등학교 시기에 일어나는 등 전체 부모가출의 63%가 아동기에 발생하고 있어(허인영, 1999), 가정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할 아동은 부모로부터 방치되었다. 따라서 학업의 기초를 배워야 할 시기에 부모의 가출과 조부모와의 재결합 과정을 겪으면서 아동은 학업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조부모의 학력이 대부분 무학 및 초졸 등으로 대부분 한글을 알지 못하여(양심영 외 2001), 아동의 학업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아동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후유증과 무절제한

컴퓨터 게임으로 학업을 등안시 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원가족 해체 후 위탁가정으로 재결합 하게 되면,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대리양육 아동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해냄”의 중심현상을 경험했다. 본 연구에서 대리양육 아동들이 조부모와 동거하면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발전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동의 성숙된 모습에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친구가 큰 힘이 되었다.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아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미소, 대화로서 협력을 하며 (Parker, 1989), 자신은 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한다(Berndt & Perry, 1986). 아동이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은 물론 일상의 모든 면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아동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경제적 곤란으로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진로와 취직에 관한 자문 및 지원서비스가 실시되어 아동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대리양육 위탁아동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아동의 목소리로 표현했다는 점과 대리양육 위탁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가장’이라는 명칭에 대한 양가감정, 조부모에 대한 죽음불안,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조부모와 세대차이, 기초가 부족한 학업능력’은 기존의 관련 연구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대리양육 위탁아동이 동병상련의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의지 등은 아동의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대리양육 위탁아동 10명의 특정한 개인적인 경험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은 이론적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즉, 대리양육 위탁아동의 주관적 경험이 전체 대리양육 위탁아동을 대표할 수 없다. 이러한 과도한 일반화의 문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다의적이고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16-18세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이지만, 발달 시기상 사춘기이다. 따라서 장기위탁의 적응은 장기위탁의 결과와 함께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김소연(2005). 사회극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능력 및 자기표현 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6(4), 1-20.
- 강수진(2000). 친인척 보호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3). **농촌 여성노인 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대구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혜선(2005).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아동복지학회**, 18, 85-117.
- 남연희(2000)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복지문제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 85-97.
- 문선화(1995).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들의 복지증진 방안. **아동복지학회**, 3, 85-106.
- 문선화·류기형(1992). 십대 청소년 가정이 생활향상

- 을 위한 연구; 부산시 금정구 중심으로. **부산대 사회과학논총**, 11(1), 117-140.
-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이상균(2001). 알코올 중독자 가정 청소년 자녀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문제. **한국사회복지학회**, 46, 118-144.
- 보건복지부(2007). **아동복지사업안내**. 서울 : 보건복지부.
- 소년한국일보(2006). 7. 23. 일자.
- 신경림(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경림·조명옥·양진향(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심영(2003). 가정위탁서비스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5), 131-146.
- 양심영·박은미·이광문·이경희(2001) **위탁아동 양육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복지재단.
- 오승환(2000). 소년소녀가장의 사회심리적 적응결정 요인. **사회복지연구**, 16, 118-139.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혜란(2005).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가출의 의미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배근(1985). 소년소녀가정의 현황 및 대책방안. **동광**, 82, 73-92.
- 이병진(1996). 사회지원망이 소년소녀가장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연집(1998). 아동기 죽음개념의 발달과 충격완화를 위한 비탄치료의 기초 연구. **서울여대 사회과학논총**, 4, 127-147.
- 최영희(1993). **질적간호연구**. 서울 : 수문사.
- 최혜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최현숙(1996). 아동가장의 복지문제와 사회적응방안. **아동복지학회**, 4, 55-81.
- 한정란·이금룡·원영희(2006). 청소년과 노년세대간 태도분석 :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신뢰도 분석모형. **한국노년학회**, 26(2), 381-401.
- 허남순(2000).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9, 263-287.
- 허남순·장옥주·강수진(2000).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제도와 위탁가정 사업 활용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33-63.
- (2004). 친인척 가정위탁과 일
반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18, 243-270.
- 허인영(1999) 빈곤결손가정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연구-가출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ndt, T. J., & Perry, T. B.(1986). Children's perception of friend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40-648.
- Forehand, R., R. Middleton & Longo. N. (1987). Adolescent functioning and consequence of recent parent divorce and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8, 305-315.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New york : Haper & Row.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 :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 Morse, J. M. (1989). Cross-cultural nursing : A unique contribution to medical anthropology. *Medical Anthropology*, 12(1), 1-5.
- Nisivoccia, D. (1996). Working with kinship foster families : principles for practice, Community Alternatives-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Care*, 8, 1-21.
- Parke, R. (1989). *Fathers*, Cambridge, Mass : Harvard

- University Press.
- Sledge, T. (1996). 가족치유 마음치유(정동섭 역) 서
울 : 요단.
-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 Health and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 Wilson, D. B., & Chipungu, S. S. (1996). Introduction
special issue on kinship care. *Child Welfare*, 75,
387-662.

2007년 8월 31일 투고 : 2007년 11월 2일 채택